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24일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김선중)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재래닭 및 백색산란계 산업의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하였다.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재래닭을 이용한 특수 축산물의 개발과 산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소득을 제고시키고자 농림부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연구사업 연구결과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 연구결과를 학술적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가금티푸스로 인해 백색산란계의 사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포지움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목차엽 참조)

산란노계 출하지연

출하가 1,000원선 이상 유지

산란실용노계 가격이 1,100원대를 형성하여 노계도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4월의 계란값이 다소 호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노계를 적기에 도태하는 쪽보다는 유지하거나 강제환우를 통한 생산기간 연장으로 급선회하여 4월의 난가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물론 농가에서 현금사정이 나빠 중추나 초생추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도태하려 했던 노계를 더 사용하는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난질, 순환을 깨쳐 병아리 가격, 계란 생산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부활절 계란특수 비축 많아
백색란 부족현상 줄듯**

교회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행사로 계란을 나누어 주는데 금년에는 4월 12일이 부활절이다. 이때 사용되는 계란은 백색란인데 최근 갈색란 위주로 계란이 유통되자 부활절을 앞두고 백색란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는데 매년 냉장시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부활절 계란 특수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과 같이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유통업 종사자들은 분석하고 있어 전과 같은 소비호재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국내 대형 제빵업체 부도
계란소비 위축될 듯**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형 제빵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계란을 납품했던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려당이 좌초함으로써 계란시장을 더욱 불안케하고 있어 안타깝다.

**육계 질병발생 급증
세미 출하로 손실 높아져**

육계업이 사료가격 인상과 현금결제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질병이 기승을 부려 세미에서 하이로 키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주체의 계약사육량 감소와 질병으로 조기출하가 높아져 육계가격은 1,800원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질병이 적은 농가

들이 하이로 올리는 작업도 있었고 소비도 계속 부진하여 다소 시장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질병은 뉴캐슬, 감보로, 전염성기관지염이 주류를 이루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계란·육계 고시기와 출하가
할인 폭 커져 소득감소**

계란에 이어 육계도 농가에서 출하할 때 수취가격에 기준을 삼도록 생산자들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출하가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다.

이 고시기는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양계농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막상 출하를 할 때에는 과거보다도 할인 폭이 커서 누구를 위한 고시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상인들은 물류비용을 주 이유로 들어 계란의 경우 10원대 이상, 육계는 현금을 앞세워 kg당 50원내지 100원선까지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시기와 수취가격상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국 닭고기 수출 저가공세
동남아 시장확보 위해 분주**

환율상승으로 닭고기 수입이 일단 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입이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최근 일본이나 타이완의 예를 본다면 미국이 자국의 닭고기 수출을 위해 저가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4불하던 부분육을 1불 또는 그 이하로 수입이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등한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양계**